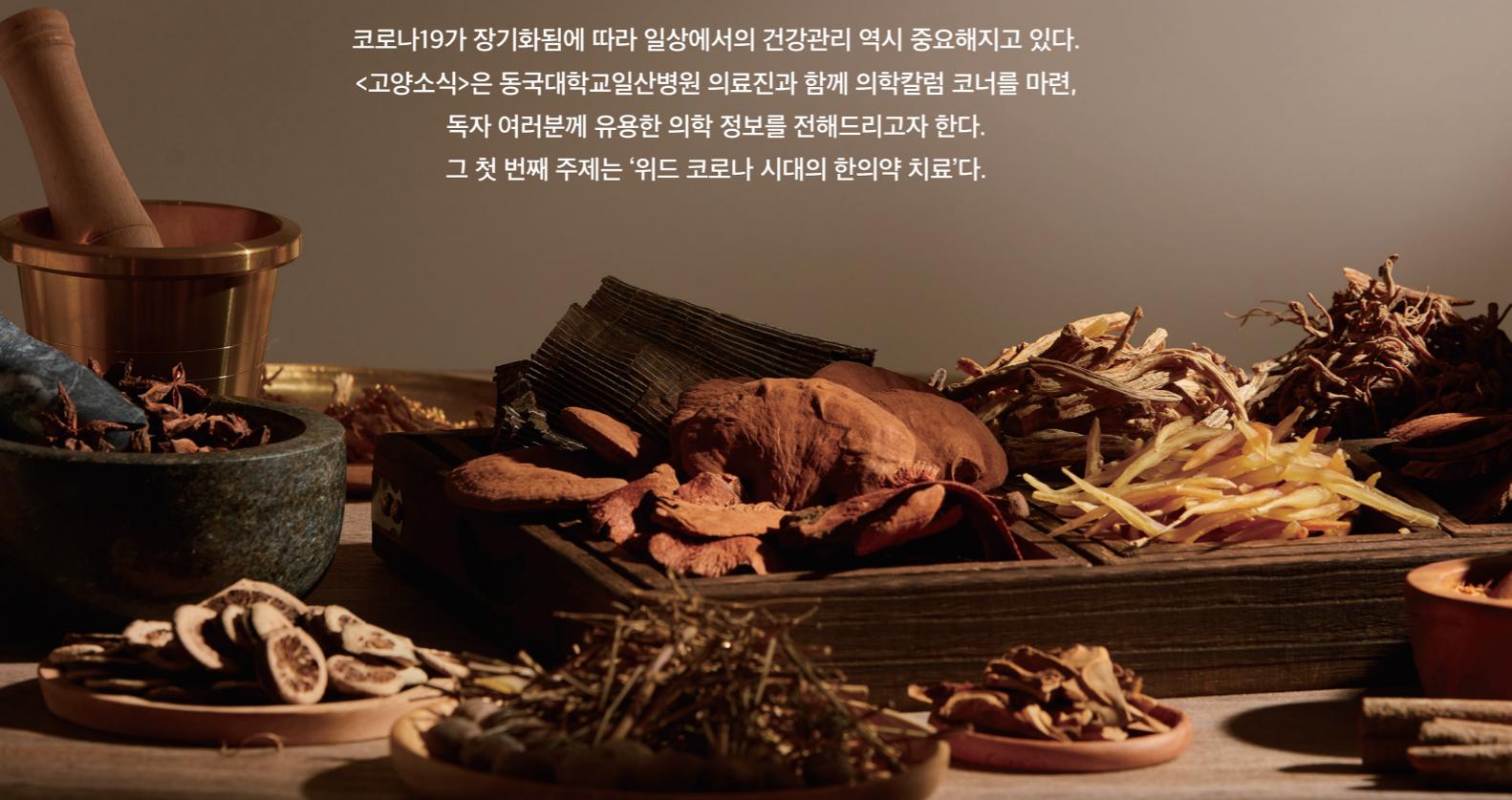


#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한의약 치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상에서의 건강관리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고양소식>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료진과 함께 의학칼럼 코너를 마련, 독자 여러분께 유용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한의약 치료’다.



## 코로나19 방심은 금물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첫 감염 환자가 발표되는 순간에만 해도, 2년이 넘도록 팬데믹 감염 상황이 지속되고 매일 새로운 감염자가 수십만 명에 이를 줄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제약사들은 역사 이래로 가장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했고,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3회씩이나 접종하는 전대미문의 경험을 하기도 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고 일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은 이래 점차 줄면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 보이고 서서히 회복의 길로 접어드는 것으로 판단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하거나 방심하기에는 이르다. 분명한 점은 코로나19 감염은 어떤 이에게는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질병이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피로감, 식욕부진, 막연한 통증,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 잔기침 등을 상당 기간 겪게 하는 여전히 위험한 전염병이란 것이다.

전문치료제나 감기약을 복용하면 대부분 2~3주 내에 증상이 완화되고 전염력이 사라진다. 하지만 음식 맛을 모르고, 냄새를 맡지 못하는 등 남아 있는 후유증은 막연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변함없는 사실은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독감보다는 치명률이 더 높다는 견해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 의식 속에서 개인위생관리와 면역기능에 대한 주의는 지속해야 한다.

## 면역력 개선하는 맞춤 치료 병행

‘롱 코비드(Long Covid)’로 불리는 코로나19 감염 회복 후의 후유증 지속 상태는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한의학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후의 몸의 상태를 폐장과 비장의 기력과 진액이 부족한 상태와 이로 인한 허열(虛熱)이 남아 있는 상태로 나눠 파악하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겨우내 움츠렸던 생리기능이 활발해지면서 기력과 진액의 소모가 더 많아진다.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앓고 회복되면 기력과 진액의 결핍으로 인한 증상 등이 질병의 후유증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평소에 앓던 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높은 분들이 더 현저하게 느끼게 된다.

단순히 면역력을 개선하는 보약을 복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어서 한의학에서는 기력과 진액을 보충하는 관점과 맞춤형 증상관리를 병행하는 치료를 적용한다.

우선 기력과 진액의 보충을 위해 인삼, 사삼, 맥문동, 숙지황, 자하거 등을 위주로 한 처방과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자 백출, 사인, 후박, 맥아 등을 포함한 처방을 진행한다. 아울러 기침, 체중감소, 식욕부진, 피로, 월경불규칙, 미열감, 후각 및 미각 장애 등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잔존 증상에 따른 맞춤형 대증 처방을 진행한다.

## 한약치료로 후유증 개선 효과

경옥고와 공진단은 대표적인 일반보양제로 감염 후의 피로감과 식욕부진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소건중탕은 쌍화탕 구성 약물에 단백질(콜라겐)과 당분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아교와 교이를 넣어 구성한 처방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행을 개선하며 완만하게 기력을 보강하여 어린이나 노인분들의 코로나19 감염 후 체력 저하나 막연한 신체 통증 개선에 효과적인 처방이다. 진해고, 맥문동탕, 생맥산 등은 폐의 진액과 기(氣)를 보충하는 처방으로 기침이 후유증으로 지속되거나 숨이 찬 증상이 남았을 때 투여할 수 있다. 이들 약물의 통상적인 복용 기간은 증상의 심한 정도와 기초체력 및 연령을 고려하여 1주에서 4주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한약치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후의 후유증을 관리하지만 침치료와 부항치료는 전신의 기혈(氣血)을 고르게 회복시키고, 막연한 결림과 통증, 피로감, 소화장애, 수면장애 등에 효과적이다. 침과 한약의 효과를 결합한 약침 치료 역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글. 김동일(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여성외과 교수)  
現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여성외과과장  
前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병원장  
前 대한한방부인과학회 학회장  
前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